



동창회보

북미주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SEVERANCE ALUMNI ASSOCIATION NEWS

26 Wimbledon Drive, Roslyn, NY 11576
T: 516.655.0088
E-mail: severanceusa1@gmail.com

발행인: 허양옥 | 편집인: 박훈재



Young-sup Yoon

1/2

2/2

2/2

2/2

Myung's iPad

2021
6
VOL.38 | NO.1

R

북미주 세브란스 동창회장 인사말

북미주 세브란스 동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년 북미주 세브란스 동창회 회장직을 맡게된 1974년 졸업생 허양욱입니다.

2019년 8월에 Chicago 교외 Oak Brook Hilton Hotel에서 31차 동창회 재상봉행사를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서로 만나지 못한지 1년 9개월이 지났습니다.

2020년 초반에 시작된 SARS-CoV-2 Pandemic으로 인하여 2020년 9월에 계획했던 지중해 크루즈 선상에서의 미주 세브란스 동창회 학술대회 및 재상봉행사를 취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COVID-19 Vaccine이 미주에서는 성인인구의 50% 이상이 접종이 되고 있어서, 11월초 쯤에는 계획대로 Houston에서 대면 학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Texas, 특히 Houston 지역에서는 COVID-19 증례수가 아주 안심할 수 있을 수준까지 내려가지 않았고 게다가 변종 Virus가 늘어 가고 있어서, 참석자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올해 미주 동창회 학회 및 재상봉 행사를 취소하기로 4월 19일에 열린 이사회 ZOOM meeting에서 결정했습니다.

올해안으로 COVID-19 Pandemic이 수그러지고 일상생활이 모든면에서 정상으로 돌아가서, 내년에는 예전대로 자유롭게 모일수 있게 되길 바랄뿐입니다.

내년 2022년에 올해 못한 32차 북미주 세브란스 동창회 및 재상봉 행사를 11월초에 휴스턴에서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특별히 많이 참석하셔서 오래간만에 그리운

친구들, 선후배님들과 반가운 만남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오시는 한승경 총동창회장님, 그리고 윤동섭 의무부총장님을 비롯한 모교의 행정 책임자들과도 만나 뵙길 기대해 봅니다.

저는 2015년 부터 북미주 세브란스 동창회 연례행사에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매년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동창분들, 특히나 저보다 월등 선배님들이신 동창분들의 모교와 동창회에 대한 열정과 사랑, 그리고 적극적인 물심양면의 지원에 큰 감명을 받고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런 신실하신 동창들 때문에 미주로 이주하는 후배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오므로 인해 동창회 회원이 점점 줄어들지만 그래도 동창회가 아직 건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1970년 이후에 졸업한 동창들, 특히 1990 년후에 졸업한 동창들이 동창회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할 때가 왔다고 믿습니다. 내년 휴스턴에서 열릴 미주동창회 행사에는 젊은 동창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COVID-19 Pandemic 이 완전히 맘을 놓을 만큼 수그러지지 않은 만큼 동창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년 연례 학술대회 및 재상봉행사에서 모두 반가운 만남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올해가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 그리고 모교에 건강, 평화, 그리고 큰 발전이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만나뵐 때까지 모두 안녕히 계세요.

허양욱(74졸)
북미주 세브란스 동창회장

세브란스 동창회 이사회 회의록

I. 2020년 정기 이사회 회의록

일시: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8PM EST

방법: Zoom Meeting

참석자: 정내관('49), 이용해('61), 이배웅('62), 김규환('63), 이봉식('64), 최선옥('64), 조은숙('65), 허일무('65), 김천수('69), 노재윤('69), 박창조('69), 이상준('71), 소인영('72), 허양옥('74), 이준호('76), 박용덕('76), 박훈재('79)

1. 회계보고서 각 동기 기금은 각각의 동기별로 나누어 금액을 보고 하도록 한다.

2. 매년 동창회 적자에 대해서 송선규, 윤인배 기념 강연후에 연자들이 동창회에 다시 기부한 기금은 General Fund에 들어가도록 한다. 그리고 가을에 나가는 재단 위원회 서신에 동창회 운영 기금 항목을 넣어서 미주동창회 운영을 위한 기금모금을 하도록 한다.

3. 재단보고는 2017년부터 재단으로 기부 들어온 총금액은 \$596,000이고 12/1/2020 현재 \$878,513으로 늘어났고 이중에 아직 투자가 안되

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부문은 \$50,425 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금을 잘 운영하여 모교와 미주 동창회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한다.

4. 많은 동창들이 해마다 꾸준히 모금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자랑스런일이다 앞으로는 새로운 motivation과 함께 모교에서 어떻게 추진하는냐에 따로 모금활동이 결정될 듯하다.

5. Bylaws에는 Annual Due를 5월 말 이전까지 내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는 email 을 혹은 동창회 보를 통해서 Annual Due에 대한 announce 혹은 remind letter가 나가도록 한다.

6. 2022년 President-Elect에는 김유근('74) 동창으로 결정한다.

7. 2021년 학회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COVID-19 관계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많은 활동이 불투명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Vaccine 접종도 가능하므로 매달 매달 다시 상황을 살펴본 후 두달후인 2021년 2월경에 다시 회장 및 행사준비 위원들이 함께 의논하여 호텔예약 및 학술대회 준비를 진행을 하도록 한다.

II. 2021년 1차 이사회 회의록

일시: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8PM EST

방법: Zoom Meeting

참석자: 홍준식('55), 이용해('61), 이배웅('62), 김규환('63), 이봉식('64), 조은숙('65), 허일무('65), 정정택('67), 김천수('69), 노재윤('69), 박창조('69), 이상준('71), 허양옥('74), 이준호('76), 박용덕('76), 박훈재('79), 정치홍('80)

1. 코로나로 인한 2021년 재상봉 행사 및 학술대회 취소

- 올해 행사 개최지인 Texas 세브란스 동창회에 서는 미주내 많은 분들이 COVID-19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염성이 높은 변종이 계속 생겨나는 등의 여러가지 안전 이유로 올해 역시 대면미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11월에 예정된 올해의 행사는 취소하기로 결정 했다.

2. 2022년 행사 안내

- Annual Meeting을 크루즈에서 하는것 보다는 Land에서 할때 참여도가 더 높고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 세브란스 동창회가 주최가 되어 Annual Meeting과 관계없이 작은 규모로 친교를 위한 Cruise를 함께 하도록 계획 하기로 한다.
- 내년 2022년 동창회 연례 행사는 허양옥 동창회장과 2022년 차기 동창회장이신 김유근 동창과 상의하여 알려주기로 한다.

3. 동창회 운영

- 동창회 운영비에 있어서 충분하지 못한 동창회비의 납부 등의 이유로 매년 적자가 있다.
- 재정위원회 중심으로 예산을 세워서 최소한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를 확실히 하고 동창들이 책임질수 있도록 하자. 이에 대해 동창회 보조를 위한 의견을 나누어 구체적인 방안을 내도록 한다. 동창회에 관심이 있는 동창, 재력이 있는 동창들을 통해 모금운동도 하여 우리 힘으로 기본적인 동창회 운영비를 조달하도록 한다.
- 회비인상, 매년 Fundraising할때 동창회 운영비를 위한 항목을 따로 만든다.
- 세브란스 재단에 지원을 요청하기로 한다.
- 이선희 간사의 보수와 Retirement Plan에 관해서는 박창조 회계와 이용해 재정위원장께 전권을 일임하도록 한다.

4. 세브란스 메디칼 재단 기금 보고

- 총 투자금액 금액 \$710,100에서 2021년 3월 31일 현재로 발란스 \$1,053,835.09가 되었고 잘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5. 동창회보 발행에 관하여

- 동창회보 편집위원회를 만들어서 동창회보를 연에 2-4번씩 내보내어 동창회 소식도 전하고 동창회비에 관한 내용을 알리도록 한다. 또한 이메일 주소를 확보해서 이메일로 동창회보를 보내어 비용절감도 생각해 보자.
- 이용해(61줄)동창, 김천수(69줄)동창, 조은숙

(65줄)동창께서 뉴스레터 편집위원으로 추천되었고 각 지역 동창회장이 Advisor가 되어 지역 소식을 전해주도록 한다.

III. 2021년 상임 이사회 회의록

일시: 2021년 4월 26일 (월요일) 8:30 PM EST
방법: Teleconference
참석자: 박창조('69), 김유근 ('74), 허양옥('74), 이준호('76), 박훈재('79)

- 동창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이사회에서 위임받아 2022년과 2023년 미주 동창회 연례행사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 결과 2022년은 올 회장이신 허양옥동창 회장이 연임 하여 Houston, TX에서 행사를 갖고, 후년 2023년에는 Knoxville, TN에서 김유근 차차기 동창회장의 지휘아래 동창회 연례 행사를 갖도록 결정하였다.

IV. 동창회 간사 은퇴 연금

일시: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참석자: 이용해('61), 조은숙('65), 박창조('69)

- 2021년 4월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이용해 재정위원장, 박창조 회계는 지난 16년간 미주동창회를 위해 일해 왔던 이선희 간사의 직원혜택에 관하여 미팅을 갖고 논의하여 향후 5년간 매년 \$5,000씩 은퇴 연금구좌를 통해 지급하도록 하였고 5년후에는 재고 하기로 했다.

그외에도 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969년 동기 졸업 50주년을 맞이하여

김천수('69 졸)

편집자주: 위의 글은 69년 졸업하신 김천수 동창께서 2019년 졸업 50주년을 맞아 재상봉 행사에서 답사로 쓰신 글입니다. 2년 전의 글이지만 2020년 이후 COVID-19으로 모교 50주년 재상봉 행사를 못하게된 관계로 이전에 쓰신 글을 이번 동창회보에 게재합니다.

총장님, 의무부총장님, 학장님, 그리고 동창회장님, 귀빈여러분,

1969년에 졸업한 김천수입니다.

의과대학 졸업후, 45년을 미국 해외 동포로 살아온 저를 택하여 답사를 해 달라고 부탁 받았을때, 이것은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저의 동기들이 저에게 맡긴 사명이라고 받고 저의 75년 인생을 되돌아 보면서 답사의 뜻을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졸업 50주년 재상봉의 뜻깊은 행사에 저희들과 같이 졸업을 했지만, 일찍 타계한 의과대

학 동기 6명, 강군순(정형외과), 선우형보(재활의학), 유상진(신경내과), 이봉영(외과), 정병찬(마취과) 그리고 최동섭(피부과), 이들 학형들의 명복을 빌고, 생존해 계신 그들 가족의 행운과 건강하심을 기원합니다.

1963년, 12대 1의 치열한 경쟁속에 선택받고 입학한 80명의 의예과 학생들, 연세대학교 대강당 신입생 환영사에서, 김동길교수님이 서울 장안에 두개의 큰 냉장고가 있는데, 하나는 이화여대 대강당, 그리고 다른 하나가 연세대학교 대강당이라고 하신게 기억납니다. 매우 추운날 이었습니다.

백양로, 노천극장, 김형석교수님의 강의, 의예과 시절 기억입니다.

1960년대는 격동기의 시기였습니다. 1960년에 4.19혁명, 1961년 5.16군사혁명, 그러한 시기에 미국에선 1963년 11월에 John F. Kennedy 대통령이 암살 당했습니다. 저희들이 의예과 1학년때 었습

니다. 1965년, 본과 1학년 때에 한일 무역협정 반대 데모에 참여해 이화여대 앞에서 최루탄을 맞으며 대응 했던게 기억납니다. 같은해 1965년, 미국에선, 처음으로 흑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Voting Rights Act of 1965가 Lyndon B. Johnson 대통령에 의해 선포 되었습니다. 자유 민주국가인 미국에서 1968년 4월에 흑인 민권운동가 Martin Luther King 박사가 암살 당하고, 같은 해 6월에 Robert Kennedy 상원의원이 대통령 선거 유세중 암살 당했습니다. 정말 미국의 격동기의 시절이었습니다. 저희들 본과 4년 동안의 학생생활은 그야말로 Severance 고등학교였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많은 의과대학 은사님들 중에, 특히 기억나는 점은 해부학 박수연 교수님의 헌신적인 열정, 밤늦게까지 교수실에 계시면서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고 물론 그때문에 밤늦게까지 저희들도 잠혀 있었지요. 생리학 홍석기 교수님, 학생들을 group으로 나누어, 도서관에서, 논문을 찾아 준비해서 presentation 하도록, 그때는 생소했던 공부방식 이었습니다. 약리학 이우주 교수님, 멋진 gesture로 autonomic nervous system 약리를 강의해 주셨던 은사님, 모두 고인이 되셨지만, 저희들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던 본과 학창시절 중에도 매년 가을이면 큰행사처럼 기다려졌던 분극의 밤, 큰 추억중의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에 있던 chapel 시간, 기독교학교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신앙과 교양의 틀을 저희들 마음에 세워 주셨습니다.

1969년 졸업 후, 저는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원주 기독병원에서, 인턴 1년, Severance 병원에서 산부인과 1년 끝내고, 1974년에 저의 집사람과 2 살짜리 딸 하나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미주리주, Saint Louis 대학병원에서 소아과 Resident를 끝내고, 미국 남부 South Carolina의 인구 1만 5천 되는 조그마한 마을 Bennettsville에서 소아과 개업을 시작했습니다. 보수성향이 매우 강한 South Carolina, 주 전체 인구는 500만정도, South Carolina 크기는 남한의 3/4정도 입니다. 날씨가 제가 태어난 고향 제주도과 비슷해서 선택했습니다. 그때는 저희 가족도 딸하나, 아들 둘이 되었습니다. Bennettsville 마을에는 동양인이 없습니다. 흑인이 35% 입니다. 애들 교육에서, 한국어를 고집하여 가르쳐야하나 고민도 했습니다만, 결국 저희 자식들은 한국말을 못합니다.

1979년 한국에선 박정희대통령이 암살 당하고, 1980년 5월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한국내 정국이 급변하고 있을 때에, 저는 South Carolina에서 그 변화를 피부에 느끼지 못하고, 그 마을에서 처음으로 소아과를 개업한 의사로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물론 그때는, CNN이 South Carolina 시골에선 없던 때입니다. 그러나, 1986년, 개업 8년만에, South Carolina의 수도인 Columbia 주변, 인구 45만명이 되는 도시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애들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의과대학에서 소아과 교수생활을 몇년했지만, 나중엔, Urgent Care Clinic에 참여하여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곳 South Carolina에 Clemson University라고 있습니다. 이 대학교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대학교에 흑인 학생 입학할 허용하지 않았었는데, John F. Kennedy 대통령이 암살된 1963년에 처음으로 흑인학생 입학할 허용했습니다. 그후에, 46년후에, Harvard 법대 출신 흑인 Barack Obama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편견보다는 역시 교육이 얼마나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미국에선 아직도 인종차별에 대한 토론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백인 우월주의가 큰 Issue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고등학교 교육만 받고 노동 계층의 직업에 종사하는 백인들이 대부분 주동이 되어 백인 우월주의를 외칩니다. 그 배경을 생각해 볼때, 그 아이가 어렸을때부터 자랄때, 아마도, 부모나 주위 친척들로부터 백인 우월이라는 편견을 들으면서 자랐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Afghanistan, Iraq, 최근엔 Sri Lanka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Suicide bombing, 자살 테러가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자살을 서슴치 않는 그 젊은이의 마음, 그사람의 자랄때의 환경을 생각해 봅니다. 한마디로, 절망속에서 자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렸을때의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눈을 떴을때, 처음으로 부모를 알아보고, 부모 목소리를 반복해서 자주 들으면서 자랄때, 자기를 사랑하고, 지켜주고 먹여주고, 그 모든 것을 부모의 정성으로 가르쳐 주고 키워줄 때, 형성되는 부모 형제 가족간의 Bonding, 유대,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아이의, 나중에는 그 성인의 Cultural background, 커다란 바탕이 됩니다. 가끔 바탕이 좋아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

것은 반드시 금전적인 여유만이 그 바탕의 큰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제가 해외 동포로서 살아온 45년동안, 연세 의료기관, Severance 새병원, 암병원과 의과대학, 치과대학은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는 의과 교육의 세계적인 leader 계열에 서서, 환자 치료에서도, 의학 연구 논문 발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Institution이 되었습니다. 2018년의 통계에 의하면 단일기관 세계 최초로 로봇수술 2만사례를 달성했다고 연세 의료원소식지에서 보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국도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1974년, 제가 한국을 떠날때 GNP per capita, 국민 개인소득이 년 3천불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국에선 26,000불 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국민 개인소득이 3만불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5만 3천불입니다.

이제 저는 저의 75년 생애를 되돌아 봅니다. 저의 생애 가장 큰 은혜는 저희 부모님입니다. 그다음은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입니다. 은사님들께서 가르쳐 주신 의학교육, 매일 아침 chapel 시간으로 시작되는 신앙과 교양교육, 마치 저의 유아시절 저의 부모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정성과 사랑에 다를것이 없습니다. 저의 인생

의 진로, 의사로서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심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가르침을 받은 큰 은혜 때문입니다. 이제 졸업 50년이 지난 오늘 저희 69년 동기들은 엎드려 “연세대학교”에 “감사합니다.”라고 외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리를 배웠습니다. 성경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였습니다. 연세대학교 교가에 “연세는 영원한 진리의 궁전이다. 자유의 봉화대다.” 라고 했습니다.

1965년에 졸업하시고 Wisconsin에 계신 최병일 선배님이 50주년 재상봉을 맞아 연세의료원 소식지에 4년전에 쓰신 글을 되새겨 봅니다.

“우리에게 높은 가치관과 열정, 진리를 탐구하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이성,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질병에서 자유롭게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준 우리의 모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저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모임에 나갑니다. 교회, 직장 또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동아리 등등 꼭 참석해야 하는 모임과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임중의 하나가 동창회 모임입니다.

동창회

이용해('61 졸)

전교 졸업생들이 모두 모이는 총 동문회가 있는가 하면 동기 동창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초등학교 동창도 있고, 고등학교 동창도 있지만 직업이 달라서 그런지 헤어지고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동창들은 같은 공부를 하고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일이 대부분이라 관계가 오래 유지가 되고 Common Interest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가 잘 통합니다. 아마 우리 삶에서 가장 친



한 친구가 대학 동기동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기 동창회에서도 꺾끄러운 때가 있기는 합니다. 돈을 많이 번 친구와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친구, 소위 사회적으로 출세한 친구와 그렇지 못한 친구, 건강한 친구와 몸에 병이 있는 친구들이 있고 이들 사이에 자존심 마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창회와 등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학교를 졸업하고 한번도 동창회에 참석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창회처럼 마음 편하게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모임도 없습니다. 어려서 아무 것도 없을 때 만나서 같이 공부를 한 사이라서 감출 것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동창들이 모이면 대학 총장을 지낸 친구도 있고 의료원장, 병원장을 한 친구도 있고 대학병원의 과장을 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개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번 친구도 있어서 대접을 받을 수 있어 좋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학생 때 공부를 잘했다고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성적순으로 의료원장이나 총장이 된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재는 학생 때 재시험만 보던 친구가...” 하고 쓴 입맛을 다시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어릴 때 친구로 격의가 없습니다. 병원의 교수로 있던 친구가 병원장이나 의료원장에게 “야, XX 야 너 요즘도 운동 나가니?”하고 묻는가 하면 개업을 하던 친구가 총장을 지낸 친구에게 “야 너 얼마 전에 XX 상을 탔더구나! 참 자랑스럽다.”라고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얼마 전 시카고에서 의과대학 총동창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동창 중에는 총장을 한 친구가 한국에서 오래간만에 와서 반갑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학 총장을 동창으로 가지고 있으니 참 좋습니다. 우리를 은근히 압박하던 선배들도 우리가 앉은 테

이블에 와서 “총장님 오시느라고 수고 했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사회의 인사들이 우리가 있는 만찬 테이블에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 인사 치레가 지나면 우리는 “야 그때 말이야 김치가 먹고 싶어 김치를 좀 사다가 냄새가 날까봐 창문 밖에 매달아 놔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팡팡 열어서 하하하...” 하며 이야기 하고 “그때 네가 좋아 하던 여자 있지 않냐? 그 여자가 돈이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해서 지금 재벌 부인이 됐어.” 라고 하며 낄낄 거리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동창이라고 해도 밖에 나가 공식으로 말을 할 때는 “XX 총장님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동창회에 참석을 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주시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인사를 하지만 우리끼리 모인 테이블에 오면 “너 임마 이젠 술 좀 적게 마셔라.”하고 충고도 합니다. 이렇게 동창은 마치 고향의 옛 친구이기라도 한 것처럼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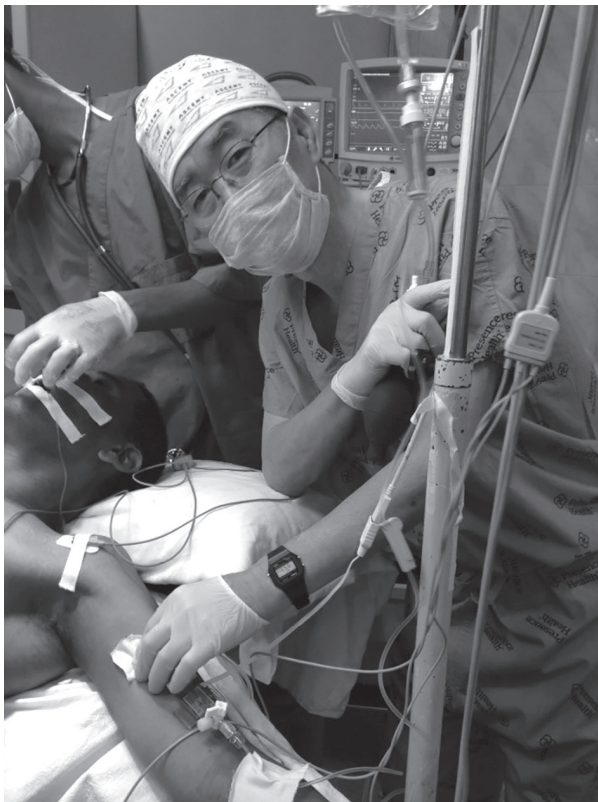
오래전 저희 선배님들이 동창회에서 만나 “야 우리 살아 있을 때 자주 모이자. 우리가 저 개나리꽃을 몇번이나 더 보고 네 대머리를 몇번이나 더 보겠냐?”하고 웃으시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 선배님들 중 살아계신 선배님은 한, 두명 밖에 안 계십니다. 봄에 함께 피었던 모란꽃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을 하더니 몇개 안남은 꽃잎마저 떨어져 버리고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내 뺨어 오르던 보람도 무너졌느니 하던 김영랑 선생의 시처럼 우리 동창들도 언젠가는 천지에 자취도 없어지고 역사속의 뒤안길에 살아져 버릴 것입니다. 친구가 그리울 때면 동창회가 생각이 납니다. “야 우리 자주 모이자 이제 네 대머리를 몇번이나 더 보겠냐?” 하시던 선배님들의 생각이 나곤 합니다.

에티오피아 의료선교를 하며...

백승현('73 졸)

저는 연세의대 73년 졸업생 백승현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후 1976년에 도미하여 수련과 practice 등 40여년의 세월이 지난후에 더 늦기전에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하고자 하여 약 5년 전인 2016년 5월에 이곳 에티오피아에 도착 하였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약 15년 정도를 교회에서 하는 단기 선교로 백근실(62졸) 선배님과 더불어 과테말라로 다닌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은퇴를 하고 선교 사역에 동참해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술실에서 마취 의사로 일하고 있는 백승현 동창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대로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육군 과병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 주었던 고마운 나라입니다. 그 당시 셀러리 황제가 자기의 근위병을 3년 동안 연 인원 6,000정도로 과병을 해 주었고 전사자는 약 125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고자 약 20년 전에 한국 명성교회에서 이곳 수도인 Addis Ababa에 Myungsung Christian Medical Center (MCM)이라는 병원을 짓고 현재는 의료인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옛날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 세브란스병원을 지어주고 의과대학을 세워 준 것을 롤 모델로 하여 이곳 에티오피아 인들을 위하여 무언가 갚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MCM에서 강원희('61졸) 선배님도 2004년 부터 2009년까지 병원 원장님을 역임하시며 봉사하셨습니다.

이곳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곳에 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연세 동창들과 힘을 합쳐서 교회 건축을 위해 힘써 왔고 감사하게도 “bulbula”란 지역에 교회를 건축해 이름을 “Bulbula Yonsei Church”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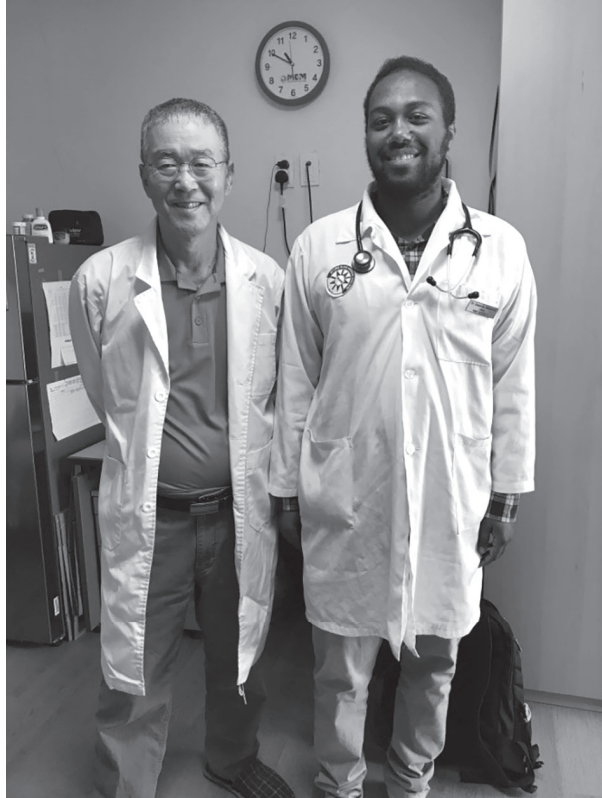




연세동창들이 힘을 모아 세운 불불란교회와 엘란난 교회.

또 다른 지역에 교회 건물도 없이 나무 그늘 아래서 강대상 하나와 의자 몇개를 놓고 예배를 드리는 너무나 황량한 엘란난이란 지역이 있어서 그것에도 엘란난 연세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동창들의 도움으로 제 3의 교회를 완공하고, 현재는 4 번째 교회를 건축 중입니다.



후원금으로 졸업하고 의사가 된 Dr. Zakaris Masresha 모습

또한 제가 involve되 있는 사역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어려운 의대생을 돕기 위한 장학금 모금과 전달 사업입니다. 저희 교회분과 같이 5년전에 처음으로 장학금을 받은 Zakaris Masresha라는 학생은 지금은 졸업을 하여 의정한 general physician 이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학생들이 장학사업의 혜택으로 의대를 졸업하게 되었고 현재는 5명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백근실 (62졸) 선배님, 윤영주(72졸) 선배님, 박서경 (73졸) 동창, 설의철(72졸) 선배님 등 여러분 연세 의대 동창들의 도움으로 감사하게 여러 학생들이 그들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그 Bridge 역할을 계속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장학사업의 후원금으로 졸업한 학생들 그리고 현재 의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저에게는 두개의 커다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곳에 있는동안 주님의 사랑을 많이 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항상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십사 하는 것이 또 다른 큰 기도 제목입니다.

여로 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멘토 장기려 박사 추모 25주기를 맞아

김유근('74 졸)

“살아있는 푸른 십자가,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렸던 성산 장기려 박사가 1995년 12월 25일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지 올해로 25주기를 맞았습니다.

평생 가난하고 힘든 환자를 돌보며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장기려 박사, 그는 술한 일화를 남기며 북에 두고온 아내와의 재회를 끝내 이루지 못한채 25년전 아쉽게도 별세했습니다.

저는 1960년 부산중학 재학시절 장기려 박사를 처음 만났습니다. 제 아버님 (김봉오 박사, 평의의 전술)은 장기려 박사와 평양 연합 기흥 병원에서 같이 근무한 동료 의사였고 미국으로 건너간 뒤에도 그분과 계속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한국 세브란스로 유학하여 의사의 꿈을 키웠고 방학때마다 장기려 박사가 근무하시던 부산 보건병원을 찾아 많은 조언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던 저에게 정신적 멘토로 상당히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약혼을 하게 되었을 때 장박사님은 약혼을 직접 주관하시고 크게 기뻐해 주셨습니다. 특히 약혼녀가 경성시대 당시 수제자 였던 노춘택 박사 (전 부산기독병원장)의 장녀였던 관계로 더욱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장박사님으로부터 두가지의 각별한 선물을 받고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과 찬송가가 같이 묶여있는 성경책 입니다. 장박사님은 성경책 안에 손수 “사랑과 평화를 사회에 전하소서. 아버지와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소서”라는 글을 써서 주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장박사님께서 친필 붓글씨로 쓴 시편 23편 액자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출근하기에 앞서 액자 앞에서 시편 23편을 읽은 뒤 출근을 합니다.

이런 장기려 박사님에게 저는 한가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992년 가족들과 함께 고국을 방문 했을 때 장박사님은 중풍으로 불편한 몸이셨지만 청십자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자네가 맡아서 하라”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국 생활을 접고 귀국할 수가 없어서 권유를 거절했었습니다.

제가 1995년 평통자문위원으로 귀국했을때 부산에 계신 장박사님께서서는 침대에 누워 거동하지 못하시는 상태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복을 방문하여 사모님과 자녀들을 만나보시는 것이 어떠시겠느냐고 여쭙자 “많은 이산가족들이 있는데 나만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만약 가게되면 나는 이복에서 살 것이다”라고 거절하셨습니다.

이날 이별하면서 같이 찍은 사진 한 장만 남기고 3개월 후 크리스마스날 장박사님께서서는 소천 하셨습니다.

저는 세브란스를 졸업한 후 미국에서 개업의로 진료하면서 의료보험이 없어서 병원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료 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게 된 배경에는 멘토인 장기려 박사님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벌써 세상을 떠나신지 25년에 되는 고인을 추모하며 부족하나마 후학을 통해 숭고한 고인의 뜻이 끊어지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미국에서 김유근 올림

세브란스 재단 활동 보고

북미주 세브란스 동창회에서는 절세의 혜택을 받으며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서 이익금으로 모교를 후원하자는 취지에서 2019년에 동창회 재정위원회 아래 subcommittee 로 세브란스 재단 (Severance Medical Foundation Investment Committee)을 두었고 꾸준히 모금운동을 하면서 Vanguard 투자회사를 통해서 아직까지는 Vanguard내에 ETF Fund를 통한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모교 혹은 동창회를 위해 일정한 기금을 재단을 통해 기부 하면서 어떤 특정한 주식으로 투자 하기를 원하시는 동창을 위해서 이러한 개별 주식 투자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미국 증시에 투자한 기금들이 만족할 만한 사이즈로 늘게 되면 그때 Donor의 의지대로 또 Donor가 원하는 목적으로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 투자 이익만으로도 모교를 도와줄수 있는 것은 재단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다.

재단의 기금은 크게 이배웅(62년졸) 재단 위원장이 \$400,000을 기부해 주었고, 고 홍완기 (67년 졸)동창이 생전에 \$100,000의 기부금으로 “홍석기, 완기 장학기금” 을 설립하여 재단을 통한 투자 이익으로 매년 모교에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 수여를 하도록 지정 펀드를 조정하였고 황영환(60년졸)동창이 \$100,000, 이회영(60년졸), 조은숙(65년졸) 동창 부부가 \$50,000, 이용해 (60년졸) 재정위원장이 \$10,000, 그외 정정택, 김천수, 박창조 재단 위원들이 매년 \$2,500-\$10,000의 기부금을 내어 주었고 또 매년 가을에 모교 발전기금 운동을 통해 많은 동창들이 동참하여 지금까지 총 \$710,100의 기금이 들어와서 2021년 4월말 현재 \$1,110,335.38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동창회와 모교를 위해 늘 관심과 사랑으로 재단에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재단을 통해서 모교를 후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동창분들이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 혹은 가이드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동창회 사무실 혹은 이배웅 재단 위원장께 연락을 주시기 바란다.

2020년 세브란스 재단 기부자 명단

| | | | |
|----------|-----------|----------|---------|
| 1960/65 | | 1967 정정택 | \$7,000 |
| 이회영/조은숙 | \$30,000 | 1968 홍승국 | \$1,000 |
| 1962 이배웅 | \$100,000 | 1969 김천수 | \$2,000 |
| 1965 김웅서 | \$1,000 | 1969 박창조 | \$2,500 |
| 1965 허일무 | \$1,000 | 1980 정치홍 | \$1,000 |
| 1967 방계현 | \$300 | | |

마종기 동창 한국 가톨릭 문학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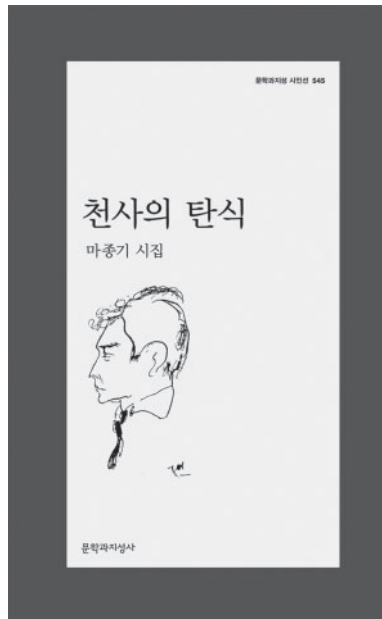
제24회 한국 가톨릭문학상에 마종기(63졸) 동창의 '천사의 탄식'(2020, 문학과 지성사)이 뽑혔다고 4월 21일 가톨릭신문사가 발표했다.

심사위원단은 "만남과 이별, 삶과 죽음 등 인간의 존재성에 대한 근원적 질문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전란과 희생 그리고 환경생태계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시야를 보여준 책"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 마종기 시인은 1939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연세대 의대를 졸업 마치고 1966년 미국으로 건너가 오하이오 주 톨레도에서 방사선과 의사로 근무했다.

의과대학 재학시 1959년 「현대문학」 추천으로 시를 발표하기 시작한 뒤 많은 시집과 산문집을 발표했고 한국문학작가상, 편운문학상, 이산문학상, 동서문학상, 현대문학상, 대산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아버지 마해송 아동문학가를 보고 자라 어려서부터 문학가를 꿈꿨던 마종기 시인. 과학을 공부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어른들의 조언에 의대에 들어갔지만 문학에 대한 열정은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당시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교수였던 시인 박두진과 가깝게 지냈던 그는 본과 1학년이었던 1959년, 「현대문학」을 통해 시로 등단



하게 된다. 미국으로 건너간 마종기 시인은 30여년을 방사선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틈틈히 시집과 산문집을 발표했다.

“문학이 없었다면 괜찮은 의사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의사의 삶이 없었다면 지금의 시가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라고 말하는 마종기는 등단 60주년을 맞아 발표한 시집 「천사의 탄식」을 통해 82년 삶을 관통했던 정서들을 엮어냈다. 그는 시집에 실린 시인의 말에서 “아주 멀고 멀리 산 넘고 바다 건너에 살고 있는 고달픈 말과 글을 모아서 고국에 보낸다”고 적었다. 1966년 미국으로 건너가 이방인으로 살며 외로움의 시간을 견뎌낸 그의 삶은 ‘그리움’이라는 단어로 시 안에 담겼다.

■ 수상작 「천사의 탄식」

1966년 미국으로 건너가 50년 넘게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았던 마종기 시인. 타국에서 의사이자 시인으로 살았던 그에게 의사로서 겪은 체험은 시의 자양이 됐고, 모국어로 시를 쓰며 이국에서 겪는 고독과 향수를 달랠다.

2015년 「마흔두 개의 초록」 이후 5년 만에 선보인 이번 시집은 반세기 동안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살아가며 겪었던 외로움이나 고국을 그리워하는 일,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깊

은 회한, 삶에서 마주한 소박한 존재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성찰까지, 인간의 삶에 대한 연민과 비애를 몸으로 껴안는 포용력을 보여준다.

여러 갈래로 뻗어온 마 시인의 시들은 이번 시집을 통해 그 물길들이 어울려 더 너른 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팔순을 넘긴 시인은 “노년을 지나는 심정은 누구나 비슷할테지만, 외국에 오래살았기에 삶을 바라보는 감정의 진폭이 더 넓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번 시집에는 다가오는 시간을 마주하는 노년의 심상, 삶에 대한 통찰

을 시적 언어로 풀어낸다. 아울러 자신의 인생을 지배했던 중요한 가치 즉, 신앙의 의미도 시를 통해 말한다. ‘시순절의 나비’, ‘사소한 은총’을 비롯해 표제작인 ‘천사의 탄식’에서는 창궐하는 역병에 신음하는 세상을 목도하며 우리가 기댈 곳은 수많은 죄와 회환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하느님뿐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위의 기사는 가톨릭 신문에서 발췌했다.

FINANCIAL STATEMENT

SEVERANCE ALUMNI ASSOCIATION, INC.

FOR THE PERIOD ENDING APRIL 30, 2021

| 항목별 기금 | | as of 4/30/2021 |
|--|------------------|-----------------------|
| Severance Medical Foundation Investment Fund | 세브란스 메디칼 재단 | \$1,110,335.38 |
| Dr. Chae Hyun Moon Scholarship Fund | 문재현 장학금 | \$106,596.42 |
| Dr. InBae Yoon Memorial Fund | 윤인배 기념 기금 | \$40,000.00 |
| Dr. Sun K. Song Memorial Fund | 송선규 기념 기금 | \$14,711.17 |
| 50th Reunion Fund | 1971년 동기 기금 | \$28,500 |
| | 1972년 동기 기금 | \$57,000 |
| | 1973년 동기 기금 | \$2,500 |
| Pathology Fund | 병리학 기금 | \$3,300.00 |
| Psychiatry Fund | 정신과 기금 | \$200.00 |
| Radiology Fund | 방사선과 기금 | \$179.00 |
| Surgery Fund | 외과 기금 | \$25,279.00 |
| General Fund | 동창회 General Fund | \$282,204.60 |
| | 총 기금 | \$1,670,805.57 |
| ACCOUNT BALANCE | | as of 4/30/2021 |
| Vanguard | | \$1,110,335.38 |
| Bank of Hope CD & Money Market | | \$363,853.37 |
| Bank of Hope Checking Account | | \$65,742.09 |
| Charles Schwab | | \$130,874.73 |
| | 총 자산 | \$1,670,805.57 |

2020년 꾸준히 사랑 전한 미주 동창

지난 한 해에도 미주 동창은 먼 곳에서 꾸준히 모교를 위한 사랑을 전했다. 2020년에만 후원금을 전한 동창의 수가 88명, 기부금만 1,571,789달러(약 18억 1,675만원)에 이른다. 매년 진행돼 오던 미주동창회도 COVID-19로 개최되지 못하고, 그리운 모국과 모교를 찾기도 어려웠지만 이를 향한 마음만은 변함이 없었다.

지난해 의대 황영환 동창(60년졸), 정봉 동창(73년졸)은 2억 원 이상 기부금을 전했고, 유영제 동창(67년졸), 윤혼영 동창(56년졸), 이봉식 동창(64년졸), 백순영 동창(60년졸) 2억원 이상 후원금을 전하며 모교와 병원 발전에 힘을 실었다.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기부 동창이 15명,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후원 동창도 46명에 이르렀다.

기부 목적별로 살펴보면 의과대학 신축기부금에 가장 많은 액수의 후원금인 약 6억 9,870만원이 전달됐다. 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센터 발전기부금으로 2억 2,620만원, 간호대학 장학기부금으로도 약 1억 4,680만원의 후원금이 모였다.

전체 기부액 중 기관별로는 의과대학 후원을 위한 기부금이 53.5%, 세브란스병원을 위한 후원금이 15.5%, 간호대학을 위한 기부금이 10.5%에 이르렀다.

의대 백순영·이봉식·이배웅 동창

백순영 동창은 최근 10만달러씩 두 차례 후원금을 전하며 지난해에만 총 20만달러를 의과대학 신

축을 위해 후원했다. 2010년부터 의료원에 후원금을 전해온 백순영 동창은 의대 신축을 목적으로 약정한 100만달러를 모두 완납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이봉식 동창 역시 약정한 의과대학 신축기금 100만달러 약정 완납을 위해 꾸준히 후원금을 전하고 있다. 지난 12월에도 101,079달러를 전한 이봉식 동창은 누적 약 80만달러를 의대 신축을 위해 전하며 의대 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졌다.

이배웅 동창은 지난달 세브란스 재단(Severance Foundation)에 10만달러를 전하며 모교사랑을 실천했다. 2018년 세브란스 재단에 30만달러를 기부한 바 있는 이배웅 동창은 다시 한번 10만달러를 후원하며 누적 40만달러를 세브란스 재단에 전했다. 이배웅 미주동창은 의과대학에도 꾸준히 기부하여 총 1억 2천여만원을 후원하는 등 나눔의 가치를 몸소 실현하고 있다.

한편, 미주동창회에서 설립한 세브란스 재단은 미주동창회 재정위원회 산하에 설립된 기구로, 미주 동창의 참여로 기금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모교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설립됐다. 현재까지 34명의 미주동창이 참여했고 운영기금규모는 2020년말 현재 약 100만 달러이다.

(의료원 소식지 제공)

모교 후원자 건강검진 및 숙소 이용안내

연세의료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미주 세브란스 동창' 여러분이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연세의료원에선 후원자 여러분이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예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누적 총액에 따라 건강검진 할인을 제공하며, 검진이 여의치 않으신 경우 검진을 대신하여 모국 방문 시 숙소를 제공해드립니다.

건강검진 및 숙소 이용 안내 (택1)

| 검진할인 예우 | 숙소 제공 예우 |
|----------------|--------------|
| 고액후원자 클럽별 검진할인 | 롯데호텔 및 신라스테이 |

건강검진 및 숙소 이용에 관해서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발전기금사무국 남진정 팀장(02-2228-1084, south@yuhs.ac)

연세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미주 동창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 동 섭 올림

세브란스 체크업 건강검진 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 | 검사항목 | 검사비용 |
|-------------|---|--------------------|
| 기본검진 | 문진, 혈압, 체성분, 혈액, 소변, 대변, 구강, 눈, 청력, 심전도 폐기능, 흉부X-선, 유방X-선, 복부초음파, 위, 여성, 영양 | 남 65만원 여 70만원 |
| 프리미엄 검진 | 남·여 공통: 기본검진 항목, 대장내시경, 간섬유·지방스캔, 골밀도, 폐·관상동맥석회화CT, 동맥경화협착도, 갑상선초 음파, 갑상선정밀, 생체나이, 복부CT | 남 210만원 여 240만원 |
| | 남성: 전립선초음파, 남성호르몬 | |
| | 여성: 유방초음파, 부인과초음파, 인유두종바이러스, 여성호르몬 | |
| 플래티넘 검진 | 프리미엄 검진 항목, 뇌MRI+MRA, 경동맥초음파, 심장초 음파, 운동부하심전도, 당뇨정밀, 치과 파노라마 X-선 촬영 | 남 370만원 여 400만원 |
| PET 플래티넘 검진 | 플래티넘 검진 항목(복부CT 제외), PET-CT, 복부 MRI | 남 490만원 여 520만원 |

※ 2021년 현재 누적 \$100,000 이상(1억원 이상) 후원자에게 후원금액에 따라 매년 \$1,000~\$5000 상당의 건강검진 할인을 제공합니다. (2020년까지 5만불 이상 기부자에게 적용하던 검진할인은 변함없이 제공)

이용 가능 숙소 안내

| 구분 | 롯데호텔 서울 | 신라스테이 | | |
|--------|-------------------------------------|----------------------------|------------------|---------|
| | | 마포 | 서대문 | 광화문 |
| 위치 | 중구 소공동 | 마포 | 서대문 | 광화문 |
| 숙소 등급 | 5성급 | 3성급 | 3성급 | 4성급 |
| 최대 숙박일 | 3박 4일 | 4박 5일 | | |
| 룸 구분 | 스탠다드 디럭스룸 (40~46m ²) | 디럭스룸(22~25m ²) | | |
| 침대타입 | 더블 / 트윈 | 더블 | 더블 / 트윈 패밀리트윈 | 더블 / 트윈 |
| 부대시설 | 피트니스, 수영장, 사우나 | 피트니스 | | |



동창동정 및 지역소식 | alumni news

시카고 소식

- 미국에서 오직 시카고 동창들만이 갖는 낭만이라고 할수 있는 시카고 동창회 골프회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전에 2-3 foursome의 팀들이 참석해서 즐거운 골프라운딩을 하고 클럽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골프장은 2019년에 미주 동창회 행사를 했던 Oak Brook Golf Club (2601 York, Rd., Oak Brook, IL 60523)이고 KakaoTalk 그룹 채팅창 “Severance OB Golf Club-Midwest”를 통해서 참석 여부를 연락 하고 있다. 관심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동참을 하실수 있다.



시카고 동창회 골프회 멤버들

- 6월에는 여러 동창들이 시카고로 영입이 될 예정이다. 배정환(2015졸), 황진영(2014졸) 동창 부부가 새로 시카고에서 자리를 잡게 되어 배동창은 화와이에서 다시 시카고로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고 황동창은 Weiss Memorial Hospital 내과 레지던트로서 수련을 시작하게 되었다. 2016년

에 의대를 졸업한 최재운동창 역시 Evanston, IL에 위치한 AMITA St. Francis Hospital 내과에 매치되어 올 7월부터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반면에 이주섭 (13졸) 동창은 시카고를 떠나 Pittsburgh, PA로 이주할 예정이다.

남가주 지역 소식

- 신경정신과 전문의 조만철 ('70졸)동창이 2021년 2월 26일 한미가정상담소 주최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뇌를 평화롭게'라는 주제로 화상 세미나를 가졌다. 조만철 동창은 LA 카운티 아태 상담소 메디컬 디렉터를 역임한 바 있는데, COVID-19 으로 인한 팬데믹의 장기화에 따른 정신적 문제, 극복방안에 관해 Zoom을 통한 화상 강연을 했다.

- 김영숙 ('70졸) 정신과 전문의 동창은 '나와 나의 가족이 경험한 ADHD' 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고 2월 25일 출판기념회를 Zoom으로 가졌다. 소아 정신과 전문의인 김영숙 동창은 미 육군, 카이저 병원에서 근무한 바 있고, 한미 특수교육센터에서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책에 관심있으신 분은 동창회 사무실로 연락하면 받아 보실수 있다.

- 남가주 세브란스 동창회 친선 골프 모임이 6월 24일 Fountain Valley에 있는 “Miles Square Golf Course” 에서 있을 예정이다. 많은 골프 멤버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 매년 연말에 갖는 남가주 동창회 연례 총회 장소를 이미 예약해 놓았고 모든 상황이 허락하는 한 진행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애틀랜타 동창회

세브란스 애틀랜타/동남부 지역 동창회(회장: 송남수, 부회장: 신동문, 총무: 윤영섭)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며 동창들간에 친목을 도모해 오고있다.

특히 2020년 9월부터 시작한 Zoom 미팅은 애틀랜타 지역 동창회 뿐만아니라 전 미주 동창들이 함께 참여할수 있도록 동창회 이메일을 통해 광고를 하고 있으며 의학, 문학, 사회 등의 다양한 주제로 격월로 강연을 준비해 미팅을 주선 하고 있다.

- 2020년 2월 COVID-19으로 인한 팬데믹이 시작하기 직전에 박준명('59졸) 동창회에서 부부동반으로 Super Bowl 파티를 하였다. 이후 팬데믹으로 대면 미팅이 불가하여 2020년 9월 부터는 비대면으로 Zoom 미팅을 처음 시작하였고 매 2개월에 한번씩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Zoom미팅을 갖기로 하였다.

- 2020년 9월 3일에는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Zoom 미팅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다. 먼저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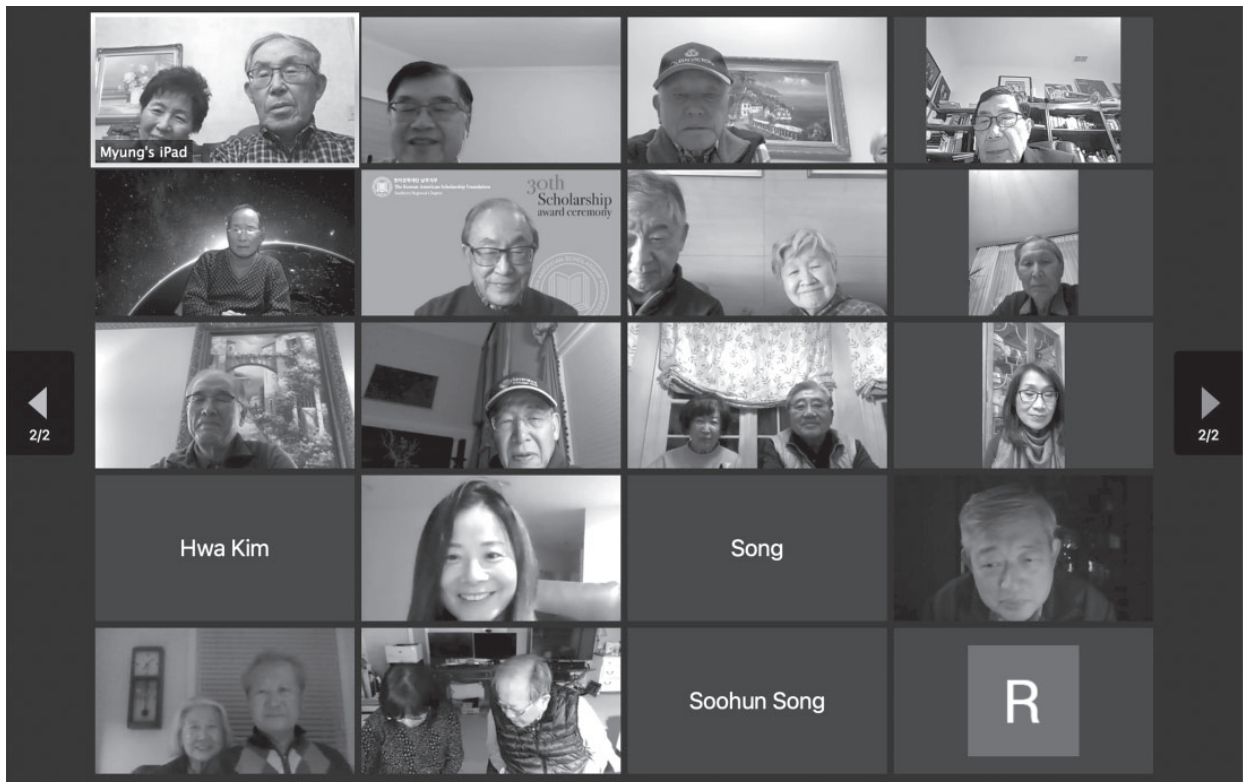
자 돌아가며 소개와 근황을 나누었다. 이무희('66졸)동창과 소인영('72졸) 동창은 새로 은퇴를 하고 은퇴후 생활을 즐기는데 전에 일할 때가 더 단순해서 은퇴가 쉬운것만은 아님을 이야기 했다.

장덕규('66졸) 동창은 Carlisle, PA에서 애틀랜타로 이주해 동기 이무희, 김명호 동창등과 함께 골프도 즐기며 잘 적응하고 있다. 박희명('63졸) 동창도 Indianapolis, IN에서 이곳 애틀랜타로 새로이 이사하고 동기인 김영훈, 장명용동창과 트리오를 이루며 즐거운 정을 나누고 있다.

윤영섭('89졸) 동창은 3년전에 Emory의대에서 석좌교수로 임명되었고 지난 여름에 연합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신동문('75졸) 동창도 2008년에 Emory 대학 석좌교수를 임명 되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애틀랜타 동창회에서 가장 젊은 동창중에 한명인 박윤아('08졸)동창이 2020년 7월에 Macon지역에서 Emergency Medicine 레지던트를 시작했고 COVID의 힘든 상황에서도 훌륭히 일을 하고 있음을 알려왔다.

- 2020년 11월 13일 Zoom 미팅에서는 이무희('66



3월 13일 Zoom 미팅에 참석하신 여러 선생님과 사모님

졸)동창이 COVID-19에 관해, Knoxville, TN에 사는 김유근('74졸) 동창이 보험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오랜동안 자신이 운영해 왔던 Free Clinic에 관해 그리고 영국에서 태어난 1.5세로 Knoxville로 이민와 의대를 졸업하고 후에 한국 의료 선교사로 또 제중원의 2대 원장으로 역임했던 존 헤론(John H. Herron)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다.

- 2021년 1월 18일 Zoom 미팅을 미주 동창회를 통해 광고하여 전 미주 동창이 다 등록하여 함께 조인 할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미팅에서는 신동문('75졸, Emory대 석좌교수)동창이 고 흥완기('67졸) 동창 서거 2주기 추모 강연으로 “Advance of Chemoprevention: Head and Neck Cancer (a Model)”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었다.

- 2021년 3월 13일 이용해('61졸) 동창께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생애와 작품”이란 제목으로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을 통해 그의 삶을 살펴보는 문학 특강을 해주었고 전미주에서 많은 동창들이 함께 경청 해주었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https://youtu.be/_CAyV-LGrHQ 로 들어가시면 유튜브로 강연내용을 다시 볼 수 있다.

- 2021년 5월 13일 박용덕('76졸, Augusta대학교 교수)동창이 “Physiology of Sleep in Aging”에 대해 강의를 해 주었다. 42명이 참가한 가운데 알찬 강의를 들을수 있었다.

필라델피아 소식

2019년 5월에 있었던 필라델피아지역 정기 동창 모임에서 이천각('65졸) 동창이 필라 지역 세브란스 동창회장으로 추대되었고 작년에는 코로나 바

이러스때문에 큰 활동을 할수가 없었고 대면 미팅을 갖지 못해 계속해서 회장직을 연임을 하고 있다. (필라지역 동창회는 매년 일년 임기의 새 회장을 추대하고 총무는 한 사람이 계속하는 동창회법이 있다).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어야 동창회를 하고 서로 만나는 기회가 마련될 것 같다.

- Edward Camerino('83졸) 동창은 오랫동안 가정의로 일했던 펜실바니아 랭카스터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요즘은 senior tee에서 골프치는 재미로 살고 있다.

- 김종태 ('82졸)동창은 UPENN 의과대학 소아과 교수로 승진했고 저명한 소아과 교과서인 Nelson Textbook of Pediatrics에 저자로 참여했고 단독 집필한 Botox 치료법이 곧 Elsevier라는 의학도서 출판사에서 발간될 예정이다.

부고

유가족들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문시형 ('58졸) 동창 - 5/12/2021
- 주용돈 ('60졸) 동창 - 3/3/2021
- 문영식 ('60 졸) 동창 - 2/28/2021
- 양한목 ('66졸) 동창 - 1/23/2021
- 문형남 ('64졸) 동창 - 1/11/2021
- 이창훈 ('58졸) 동창 - 11/30/2020
- 양재웅 ('49졸) 동창 - 11/11/2020

이사회비

2020

- 1961 고영재 \$200
- 1966 김명호 \$200
- 1966 장일웅 \$200
- 1969 김천수 \$200
- 1970 한상인 \$200

- 1972 김수룡 \$200
- 1974 김유근 \$200
- 1984 곽영희 \$200

2021

- 1969 김천수 \$200



문재단 장학금 안내

기부자이신 문재현(72) 동창께서 미주 동창회 의 일원으로 미주 동창회 행사에 참석하시고 느끼신 바, 미주 동창회원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특히나 1975년 이후 미주 동창회 회원 의 참석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많이 걱정 되시어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단 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장학금을 미주 동창회에 기부하시고 문재단 장학금 을 만드시어 매년 5명의 동창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신 동창분들은 앞으로 미주 세브란스 동창회의 활동에 참여해주시기를 권장하오며 또한 이러한 기부정신을 이어받아 이를 기억하시고 다음에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후배들을 위해 다시 기부를 하실수 있는 전통을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장학금 수혜 자격

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원주 의과대학 졸업생
2. 미국에 의사로 영구 정착할 동창 (Absolute Requirement)
3. 미국에 인정 받은 연수 과정이 증명된 동창
4. 경제 사정이 힘든 동창
5. 서울, 원주 의과대학 학장 추천
6. 미국 동창회 이사회 추천
7. 미국 동창회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동창

장학금 수혜 내용

첫해 연수과정에 경제적 도움을 위하여 일인당 \$10,000 지급

필요한 서류

1. 자기 소개서 - 한글
2. Curriculum Vitae
3. 추천서(학장)
4. 미국내 재직 증명서
5. 최근 세금보고 서류

2020/21 모교 발전기금

2020 모교발전기금

의과대학 신축기금

| | | |
|---------|-----------------------|-----------|
| 1960 | 백순영 | \$200,000 |
| 1961 | 김영경 | \$250 |
| 1961 | 고영재 | \$500 |
| 1961 | 강석호 | \$1,000 |
| 1961 | 지금호 | \$10,000 |
| 1962 | 이준석 | \$500 |
| 1962 | 전경수 | \$1,000 |
| 1962 | 이원재 | \$10,000 |
| 1963 | 김윤철 | \$500 |
| 1963 | 이종욱 | \$5,000 |
| 1964 | 이봉식 | \$100,000 |
| 1965 | 정학량 | \$500 |
| 1966 | 이병윤 | \$1,000 |
| 1966 | 장덕규 | \$1,000 |
| 1966 | 서재만 | \$10,000 |
| 1967 | 김덕진 | \$1,000 |
| 1967 | 김태원 | \$1,000 |
| 1968 | Hannah Kim (Mrs. 김충홍) | \$3,000 |
| 1969 | 조원섭 | \$500 |
| 1969 | 김광옥 | \$1,000 |
| 1972/74 | 김수룡/김영희 | \$1,000 |
| 1972 | 소인영 | \$1,000 |
| 1972 | 안상선 | \$1,000 |
| 1972 | 정인국 | \$10,000 |
| 1973 | 정봉 | \$87,767 |
| 1980 | 정치흥 | \$1,000 |
| 1984 | 고봉석 | \$1,000 |
| 1987 | 박원일 | \$1,000 |
| 1990 | 김진안 | \$20,000 |

St. Louis 동창회

| | | |
|------|-----|-------|
| 1955 | 정민 | \$100 |
| 1960 | 박득재 | \$100 |
| 1960 | 배상진 | \$100 |

| | | |
|------|-----|-------|
| 1962 | 김경석 | \$100 |
| 1962 | 정갑은 | \$100 |
| 1963 | 간정홍 | \$100 |
| 1967 | 김덕진 | \$100 |
| 1968 | 송희만 | \$100 |
| 1969 | 박종관 | \$100 |
| 1970 | 한상인 | \$100 |
| 1971 | 박태성 | \$100 |

2021 모교발전기금

의료선교센터

| | | |
|------|-----|-----------|
| 1956 | 윤흔영 | \$100,000 |
|------|-----|-----------|

방사선 종양학과 기금

| | | |
|------|-----|-----------|
| 1971 | 유영우 | \$100,000 |
|------|-----|-----------|

의과대학 신축기금

| | | |
|------|-----|----------|
| 1969 | 박종관 | \$10,000 |
|------|-----|----------|

의대 장학금

| | | |
|------|-----|---------|
| 1963 | 김규환 | \$1,000 |
| 1965 | 김정규 | \$500 |
| 1965 | 강행자 | \$500 |
| 1972 | 설의철 | \$1,000 |

장학금

의대장학금

| | | |
|------|-----|----------|
| 1962 | 이배웅 | \$16,000 |
| 1963 | 김규환 | \$1,000 |
| 1967 | 방영수 | \$10,000 |
| 1983 | 최달 | \$500 |
| 2001 | 이화정 | \$250 |

62년 동기장학금

| | | |
|------|-----|---------|
| 1962 | 차진석 | \$1,000 |
|------|-----|---------|

후배사랑장학금

| | | |
|------|----------------|---------|
| 1963 | 간정홍 | \$250 |
| 1963 | 이성애 | \$500 |
| 1964 | 방희진 | \$250 |
| 1965 | 강행자 | \$2,000 |
| 1965 | 최병일 | \$2,000 |
| 1965 | 박훈 | \$2,500 |
| 1968 | 임건부 | \$1,000 |
| 1971 | 윤은주 (Mrs. 윤경욱) | \$250 |
| 1972 | 류지선 | \$5,000 |
| 1987 | 정만길 | \$3,000 |
| 1991 | 김주희 | \$250 |
| 2001 | 김대현/정혜진 | \$250 |

기타

김명선 재단

| | | |
|------|-----|----------|
| 1953 | 홍철유 | \$10,000 |
|------|-----|----------|

연구기획위원회

| | | |
|------|-----|-------|
| 1955 | 홍준식 | \$500 |
|------|-----|-------|

의료선교센터

| | | |
|------|-----|-----------|
| 1956 | 윤흔영 | \$100,000 |
|------|-----|-----------|

장기이식센터 기금

| | | |
|------|-----|-----------|
| 1960 | 황영환 | \$100,000 |
|------|-----|-----------|

해외의료선교기금

| | | |
|------|-----|-----------|
| 1961 | 이은자 | \$1,000 |
| 1967 | 유영제 | \$100,000 |

연구혁신기금

| | | |
|------|-----|----------|
| 1965 | 김명진 | \$1,000 |
| 1966 | 이종무 | \$2,000 |
| 1967 | 이화무 | \$1,000 |
| 1974 | 원종만 | \$20,000 |

연세암센터

| | | |
|------|----------------|----------|
| 1967 | 홍미화 (Mrs. 홍완기) | \$50,000 |
|------|----------------|----------|

동창회비

2020

1949 정내관
1954 조삼경
1955 홍준식
1957 변겸식
1957 오세욱
1957 정주실
1958 이동한
1958 이재석
1958 이창훈
1960 김문현
1960 김병훈
1960 변희중
1961 강석호
1961 고영재
1961 박영자
1961 지금호
1962 김영록
1962 민장현

1962 허정
1963 김명진
1963 김명희
1963 이규덕
1963 이재경
1964 신기덕
1965 강행자
1965 조신근
1966 장덕규
1966 최무길
1967 김태원
1967 방계현
1967 유영제
1968 윤항진
1969 김천수
1969 박준만
1969 이두광
1970 김경식
1970 유득기
1971 김은혁
1972 김수룡

1972 류지선
1972 설의철
1972 소인영
1972 안홍찬
1972 이철무
1974 김영희
1974 조동식
1976 이준호
1979 박훈재
1979 이문희
1979 정광호
1982 김상애
1982 김종태
1982 김효환
1983 최달
1984 고봉석
1987 박원일
2001 김대현
2001 정혜진

2021

1953 조삼경
1954 오상백
1957 오세욱
1961 송성인
1961 이은자
1963 윤백헌
1963 이재경
1964 정형률
1967 유영제
1969 김천수
1971 김시영
1972 설의철
1972 안상선
1976 이준호
1979 박훈재
1982 김상애
1987 박원일

동창회 기부

홍준식 ('55졸) 동창과 Mrs. 윤은주 (고 윤경옥 '71졸)께서 조의금을 미주동창회 기부하셨습니다.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2020

1949 정내관 \$310
1955 홍준식 \$50
1956 윤흔영 \$2,000
1957 변겸식 \$200
1957 정주실 \$1,120
1960/65
이회영/조은숙 \$200
1960 김병훈 \$500
1960 변희중 \$100
1961/67
김영주/송서강 \$1,300
1961 윤경주 (Mrs. 윤인배)
\$1,000

1963 김명희 \$150
1965 조신근 \$300
1967 김덕진 \$300
1967 정정택 \$2,000
1967 김태원 \$100
1969 박준만 \$250
1970 유득기 \$610
1971 김은혁 \$200
1971 석민수 \$300
1971 안효승 \$300
1971 유영우 \$200
1971 정규식 \$200
1971 정성수 \$3,000
1971 천용철 \$300
1972 윤영주 \$500

1972 전윤택 \$500
1972/74
김수룡/김영희 \$1,000
1978 조인화 \$200
Aaron Andrews \$175
Tyler Castle \$25

2021

1954 오상백 \$100
1971 김시영 \$850

동창회비 안내

동창들에게

까무의 페스트에 나오는 오랑시의 전염병은 봄에 시작하여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이 되면서 물러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를 덮고 있는 COvid 19 은 봄에 시작하여 여름 가을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왔는데도 물러갈 기색을 보이지 않고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며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다고 터널 끝이 보이는 듯 하지만 굴의 밖은 비가 내리는 어두운 하늘로 덮혀 있는 것 같습니다. 격리된 방에 갇힌 우리들은 외롭고 우울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그리워 집니다. 그런데 동창들보다 친한 친구들이 또 있겠습니까

같은 지붕 밑에서 같은 스승에게 같은 진리를 공부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동창들보다 더 가까운 친구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2020년 우리는 유리같은 지중해에 배를 띄우고 나폴리를 바라보며 정담을 나누려고 했는데 우리의 꿈이 무산이 되고 금년 휴스턴에서 만나려던 꿈도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임인 동창회도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선배님들을 잃는것도 가슴아픈 일이지만 많은 젊은 동창님들이 동창회를 등지고 사는 것이 더 가슴 아픕니다.

동창회가 무엇을 잘못 했나요 동창회가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섭섭하게 했나요 만일 그런일이 있다면 나오셔서 마음 털어 놓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우정을 살리는게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의 동창회를 다시 활기차고 생명력있는 우정의 모임으로 만들어 봅시다.

동창회가 운영비의 부족으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회비도 내어주시고 참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고 싶고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응답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웨침이 허공의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두손모아 기도 드립니다.

신축년 초 여름에 이용해 드림

2021년 미주 동창회비 납부서

| | | | |
|-----------------------|--------------|--|-----------------|
| Name(Korean): | (English) | Year of Graduation: | |
| Address (if Changed): | | Annual Mem. Dues (All SAA Members to Pay) | \$150.00 |
| | | 이사회비 | \$200.00 |
| Phone:(Home) | (Cell Phone) | Greater NY Area Members Dues | \$40.00 |
| E-mail: | | 동창회 운영비 | |
| | | 기부금 | |
| | | TOTAL | |

*Please make the check payable to **SAA, INC.**

Mail to: **Severance Alumni Association**

26Wimbledon Dr. Roslyn, NY 11576 | 516.655.0088 / E-mail: severanceusa1@gmail.com